

# 한국인과 일본인의 죽음의식 비교연구

정수현  
(연세대학교)

## I. 머리말

한국 사람들처럼 죽는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도 없다. 한국인들은 밋고 슬프고 외로울 때만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좋아 죽겠고 기쁠 때에도 기뻐 죽는다. 심지어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표현을 쓴다.

뿐만 아니라 ‘죽인다’ 소리도 아주 잘한다. 아이나 어른이나 조금 화가 나면 죽여 버린다는 말을 쉽게 한다. 물론 정말 죽일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입에 뱀 말이다. 한국말에서는 죽인다는 말이 특별한 살의를 담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죽인다는 말은 그리 살벌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평화롭고 화기에애한 장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 죽여준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언어생활에서는 ‘죽음’이나 ‘죽는다’는 말은 가볍게 쓰면서도 정작 진짜 죽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꺼려한다.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의 죽음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들여다보는 문화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의 하나가 ‘죽음’이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

다. 개인이 죽음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삶의 해석 또한 다양해진다. 죽음관은 한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활 습관부터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은 신화까지 여러 가치관을 복합적으로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관은 죽음에 대해서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야기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죽음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서구적 철학이나 서구적 인식방식과 관련지어 동서양의 차이에만 주목해왔던 것과 달리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죽음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형성 배경에 있어 유사한 문화적 특질을 공유하고 있어 비슷한 듯하지만 매우 이질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음의식이다. 두 나라의 죽음관을 나란히 두고 살피는 것은 한일 문화의 근본적 차이점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이를 구조적으로 비교한다면 각 문화의 특수한 성격 또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죽음의식을 비교 연구한 대표적 논문으로 최길성, 김양기, 노성환, 김용운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길성은 한일 양국이 유교적인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서로 공통되지만 양국의 서로 다른 사회구조로 인해 한국의 자살이 ‘효의 윤리’가 강조된 것이 많은 것에 비해 일본의 자살은 ‘인의(仁義)의 윤리’가 강조된 자살이 많다는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sup>1)</sup> 이에 비해 김양기는 한국인은 저승에서 꿈을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희박한 반면, 일본인은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저승에서 이루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빈도수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sup>2)</sup> 노성환은 한국의 분신과 일본의 할복을 비교하면서 한국인이 분신하는 목적이 격분한 상황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본의 경우는 꿈에도 그리는 영원한 이상향 극락에 가기 위한 것이라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sup>3)</sup> 한편 김용운은 일본인들이 죽음을 미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충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그 원형은 기마민족에서 찾을

1) 최길성, 「한일의 자살을 통해 본 생명관」, 『일본학지』 8, 계명대 일본문화연구소.

2) 김양기, 「한일의 자살비교」, 『가면속의 일본인』, 한나라, 1994.

3) 노성환, 「한국의 분신과 일본의 할복」, 『일본어문학』 12, 2002.

수 있다고 했다. 즉 기마민족의 특징은 전쟁인데 전쟁은 죽음이 따르기 마련이고 따라서 죽음을 긍정하는 철학이 요청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 강화의 윤리를 강조하는 죽음의 미학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한국에서는 일찍이 사라졌지만 일본에서는 무사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sup>4)</sup>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죽음의식을 비교하려는 몇몇 시도들이 있었지만 주로 자살의 목적, 자살의 방법 등을 비교하는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중 죽음관을 비교문화론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과 일본의 문화차이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전제 아래 두 나라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상, 태도 등 죽음 문화 전반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양국의 죽음문화의 특성을 고찰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비교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죽음을 표현하는 언어에 대한 탐구를 한 후 두 나라의 언어와 사상을 체화한 대표적인 인간형인 선비와 사무라이의 죽음관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죽음에 대한 사상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 II. 돌아가다 와 사요나라

한 민족의 말 풍경에는 국민 개개인의 성격이나 삶의 배경, 주요 갈등은 물론 그 나라 특유의 집단적 무의식에 뿌리를 둔 언어 습관이 드러난다. 특히 생로병사를 표현하는 언어에는 그 민족의 의식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마련이다.

불교와 유교라는 공통된 종교의 영향아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죽음관은 비슷한 듯이 보이지만 죽음을 대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다

4) 김용운, 『한국인과 일본인 4 정착과 정복』, 한길사, 1994.

르게 나타난다. 언어표현 면에서 볼 때 한국인들은 쉽게 ‘죽음’을 입에 올린다. 김열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죽음을 '숨을 거두다', '영면하다', '타계하다', '신의 부름을 받다' 등 수 많은 말로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죽는다'는 표현은 과잉 사용된다. '소리가 죽는다'는 표현에서부터 '배고파 죽겠다', '이뻐 죽겠다' 등 과장법으로 사용된다. 이는 "사람의 목숨에 관련된 죽음의 낱말이 극단적으로 기피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한 역설적인 사례들"<sup>5)</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본사람은 죽음을 꺼림직하게 여기고 입에 올리기도차 꺼릴뿐더러 장례식에서 상주가 눈물을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 수학자이자 일본문화의 비평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김용운은『한국인과 일본인1 칼과 붓』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죽음관을 장례를 치를 때에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 사람은 평소에 느끼듯이 죽음을 가장 중대한 것으로 그대로 소박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일본사람은 마치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장사를 치른다. 한국 사람에게 는 상을 당한 것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웃과 친지들에게 빠짐없이 알려야 하는 큰 번고이다. 부고와 문상처럼 모든 한국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사람은 죽음을 오히려 추하게 여기고 극도로 형식화한 의식에 따라 이 추한 면을 숨기려고 한다<sup>6)</sup> 한국의 경우 부모를 잃은 가족들은 우는 소리(곡소리)와 슬픔 감정의 표출이 자연스럽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슬픔을 자제하고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장례문화도 크게 다르다.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라도 한국인은 대성통곡과 같이 감정을 발산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반면 일본이나 중국의 장례식장에서 한국과 같은 통곡장면은 쉽지 않다'<sup>7)</sup>

한국의 장례식장 분위기를 상상했는데 일본은 마치 중역 회의장에 온 것처럼 사방이 정숙하다 못해 고요했다. 누구하나 소리 내서 우는 사람도

5) 김열규, 『메멘토 모리, 죽음 기억하라』, 궁리, 2001, p71.

6) 김용운, 『한국인과 일본인 1 칼과 붓』, 한길사, 1994, pp.170-171.

7) 정해승, 『엔터테인먼트 경제학』, 서울 휴먼비즈니스, 2006, pp.89-90.

없었고 한국 장례식장처럼 떠들며 술을 마시거나 고스톱을 피는 일은 더욱 더 없었다. 분명 망자의 죽음이 슬펐을 텐데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슬픔을 죽이며 문상객을 맞는 모습이 충격에 가까웠다.<sup>8)</sup>

일본의 장례식장 풍경을 본 한국인들은 자주 이런 놀라움을 토로한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인들은 죽음에 대해 탐구하는 쪽을 택하였고 한국인들은 그것을 일상으로 끌어들이어 감정 발산을 통해 그 두려움을 이겨나갔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표현을 한국인들은 ‘숨을 거뒀다’, ‘이승을 하직했다’, ‘별세하셨다’, ‘유명을 달리하셨다’ 등을 쓴다. 그러나 이 밖에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있다 바로 “돌아가셨다”이다. '죽음'을 '돌아가다' 즉, 'go back'의 의미로 사용하는 나라는, 오직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우리 민족의 생사관이 녹아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죽음 이후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식이 팽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의 수의를 천연 비단이나 삼베로 했고 관도 오동나무 관을 선호했다. ‘죽음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서구의 죽음관과 달리 한국인들은 죽음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삶과 죽음을 순환계로 바라보려 한다’<sup>9)</sup>

한국의 노인들은 결혼식을 앞둔 젊은 남녀처럼 죽음을 준비한다. 뒷자리를 미리 구해놓기도 하며, 수의도 미리 마련한다. 옛날부터 복 있는 늙은이는 좋은 수의를 입고 간다는 관습이 있어서 윤달이나 손 없는 날에 수의를 준비하는 것이 법도 있는 집에서 하는 일이었다. 자식들 역시 나이가 많은 부모를 위해 그러한 준비를 해드리는 것을 효도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자손들과 죽은 뒤의 일처리 등에 대해 상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러한 행위들을 마치 주검을 떠넘기는 일쯤으로 여긴다.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손자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귀국한 언니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박완서의 소설 「꽃잎속의 가시」(1998)는 노인세대와 젊은이들이

8) 차길진, 「일본의 한류열풍과 원인」, 『스포츠조선』, 2004, 7.27.

9) 김열규외, 『한국인의 죽음과 삶』,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p.34.

죽음에 대한 인식 차이가 불러일으키는 갈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던 화자의 언니는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오면서 수의를 가지고 온다. 허름한 이민가방이나 상스러운 언니의 차림과 대조적으로 수의가 들어있는 가방은 새 가방이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명품 가방에 담긴 것이 안동포로 만든 수의임이 드러나는 날 손자의 결혼식이라는 경사에 수의를 가지고 온 언니를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가방 밑에 용수철이라도 장착된 것처럼 안의 것들이 두둥실 부풀어 올랐다 대나무 숲을 스친 미풍 같은 상쾌한 소리와 함께 그것들이 코끝까지 부풀어 오를 것 같은 환각 때문에 우리는 다들 비명을 억누르며 뒤로 한걸음씩 물러났다. 누런 베옷들이었다. 우리가 느닷없는 이물감을 어쩔볼 새도 없이 언니는 그 안의 것을 한 가지씩 끄집어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원삼, 당의 천금 지요 떡목 악수 .....그것은 수의였던 것이다!<sup>10)</sup>

“어머니 그만 하세요 그만요” 조카가 먼저 격앙된 목소리로 어머니를 만류했고, 질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방을 뛰쳐나갔다. 탄 식구들도 우르르 질부를 따라 나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일이 왜 조카며느리가 울고불고 위로받아야 할 일로 둔갑을 했는지 미처 깨달을 새도 없이 언니가 꺼내놓은 것들을 우선 안보이게 하는 게 수라고 생각했다.<sup>11)</sup>

노인이 경사와 죽음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에 비해 젊은이인 조카와 질부는 상스럽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가방에서 안동포로 만든 수의를 하나하나 꺼내는 언니에게 조카는 ‘격앙된 목소리’로 만류하고 질부는 울면서 뛰쳐나갔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죽음이란 죽음을 삶의 자리에서 맞이하였으며 삶과 죽음은 단절되지 않았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

10) 박완서, 「꽃잎속의 가시」,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비평사, 2006, pp.214-215.

11) 박완서, 위의 책, p.215.

으로 여겨졌다.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산사람과 교류하며 관계를 유지하였다. 노년의 사랑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박완서의 「마른꽃」(1995)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애야 형숙아 잘 들어라. 이 에미는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다. 딸아이도 이 말에는 머쓱해서 더는 아무 말도 안했다. 비록 선산은 아니었지만 공원묘지의 남편묘는 나하고 합장하도록 곁에 가묘까지 만들어져 있었고 묘비명에도 내 이름이 남편과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이미 묘와 묘비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태어난 연월일 밑에 들어갈 죽은 날짜만이 아직 새겨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성묘하기를 좋아했다. 그하고 사귀는 동안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나의 일상적인 행동 중 거기서 느끼는 깊은 평화에 대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큰 기쁨이나 슬픔도 그 위를 스치는 잔물결에 지나지 않았다 결코 죽은 평화가 아니었다. 거기가면 풀도 예쁘고 풀 사이에서 서식하는 개미 메뚜기 굼벵이도 예뻐다. 그의 육신이 저것들을 키우고 있구나. 나 또한 어느 날부터인가 그와 함께 저것들을 키우게 되겠지 생각하면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죽음이 겁나지 않았고 미물까지도 유정했다 진이 빠지게 풀들과 곤충들을 키우고 난 찌꺼기는 화장하여 훨훨 산하를 주유하도록 해주기를 자식에게 부탁할 작정이다. 그 보장된 평화와 자유로부터 일탈할 어떤 유혹도 있을 수가 없었다.<sup>12)</sup>

노인 주인공은 몇 년 전에 죽은 남편의 산소에 성묘를 가면 그곳에서 평화를 느낀다. 그 평화에 비하면 그녀가 지금 찾아온 노년의 사랑으로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은 이미 정욕이 없기 때문에 그 위를 스치는 잔물결에 지나지 않는다. 육체가 배제된 기쁨이나 슬픔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잔물결이나 미풍이 수준의 넘어설 수 없다. 육체가 배제된 ‘겉멋’뿐인 사랑보다는 죽음 뒤에 찾아 올 평화를 상상하고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그녀를 더욱 행복하게 살맛나게 만든다.

위에서 살펴 본 박완서 소설에서 보듯 한국의 전통적인 죽음문화의 기저에는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나 무화(武火)가 아닌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라는 이

12) 박완서, 「마른 꽃」,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비평사, 2006, p.41.

해가 놓여 있다. 죽고 나면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양태가 변화할 뿐이다.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그 관계를 지속해 간다. 죽음은 완전한 떠나감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즉 조상으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도, 외로운 것도 아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죽음 이후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죽음의 자기 예비는 살아생전에 미리 자신의 죽음에 스스로 길들려고 든, 생과 사의 화해정신이었다. ...중략...이는 죽음 앞에서 고개를 외로 끄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미래시제 속에 미루려 드는 기색도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sup>13)</sup>

우리 선조들은 죽을 때가 되면 무덤자리를 준비해 후손들의 수고를 덜어주었는데 이로 인해 죽기 전에 수의나 터를 준비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생겼고 이를 가묘라 불렀다.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삶을 바른 죽음을 위한 기나긴 준비의 과정으로 여기고 살아갔다. 수의와 가묘를 장만하는 것은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대비하면서도 삶의 의욕을 잃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것이다.

한국인의 죽음의식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돌아가다’라면 일본의 죽음의식은 ‘사요나라(さよなら)’에서 그 뿌리를 찾아 낼 수 있다. 일본인들은 영원히 이별할 때나 장례식장에서 ‘사요나라’라고 한다고 한다. 도쿄대학 문학부교수로 재직 중인 다케우치 세이치는 『일본인은 헤어질 때 왜 ‘사요나라’라고 말할까』라는 책에서 ‘사요나라’라는 말의 역사를 살피고, 이 말이 일본인의 사생관(死生觀)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인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를 추적하고 있다. 그는 ‘사요나라’는 단순한 이별의 말이 아닌 ‘그렇다면, 자 그럼’이라는 사후세계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라 파악한다. ‘이별,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사요나라 (그렇다면)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라면 받아 들이자라는 굳건한 결연의 의지가 있는 말’이라 하면서 일본인의 체념을 드러내는 죽음의식은 ‘사

13) 김열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 한국인의 죽음론』, 앞의 책, p.66.



요나라'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4)</sup> 그러므로 '사요나라'라는 말속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동시에 어쩔 수 없다면 '꼭 그래야만 한다면 피할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것(죽음)을 받아들일겠다는 선선히 체념하는 일본인의 의식을 담은 말이라는 것이다.

일본인은 죽음을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로 '체념하면서' 받아들인다. 이때의 '체념'이란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 슬픈 감정을 미학적으로 승화시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인의 죽음은 한국인들의 경우처럼 '원래로 돌아가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체념과 무상에 도취된다. 죽음은 끝이며 나쿠나루모노(失亡 없어지는 것) 또는 가쿠레루모노(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sup>15)</sup> 한국인과는 달리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죽음 앞에서 발작적으로 통곡하는 대신 차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체념'이 있기에 가능할 것이다.

일본인 작가로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체념'을 고대부터 이어 내려온 일본 문화의 기본적인 원형이라 간파하고 있다.

일본어에는 '무상無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은 이윽고 소멸하며 모든 것은 머물 곳 없이 모습을 바뀌어 나간다. 영원한 안정(安定)이나 불변 불멸하는 것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불교로부터 전해 내려온 세계관입니다만, 이 '무상無常'이란 사고방식은 종교와는 조금 떨어진 맥락에서 일본인의 정신성에 강렬하게 드러붙어 고대로부터 거의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간다'라는 관점은, 말하자면 체념의 세계관입니다. 사람이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그와 같은 체념 속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름다움의 존재방식을 찾아내었습니다.<sup>16)</sup>

이처럼 일본인이 인식하는 죽음이란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즉 체념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때의 체념은 '내 뜻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

14) 다케우치 세이치, 『일본인은 헤어질 때 왜 '사요나라'라고 말할까』, 어문학사, 2010, p.75.

15) 김응교, 『일본문화의 전통과 현재』, 『교회와 신앙』, 한국교회문화사, 1999년 5월호.

16) 무라카미 하루키, 「2011년 카탈루냐 국제상 수상식 연설」

따라야만 하는 어떤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런 개념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동아시아 국가 들 중 한국과 중국에서는 생사관(生死觀)이라는 말을 쓰지만 일본만은 사생관(死生觀)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들은 삶보다 죽음을 우선시한다. 게다가 죽음을 아름다운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 일본문학사와 사상사를 고찰해보아도 대체로 일본인은 죽음을 공포감보다는 무상감 혹은 비애감으로 체험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서양에서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한국인의 경우는 원래의 장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일본인은 사망을 '나쿠나루모노'(失亡 : 없어지는 것)라고 한다. 그야말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요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 Ⅲ. 선비의 명분과 사무라이의 의리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형이 있다. 영국은 '신사(Gentleman)', 미국은 '개척자(Pioneer)', 일본은 사무라이가 각 나라를 대표한다. 이러한 이상적 인간형은 그 나라가 표방하는 전통적인 도덕관 국가관 세계관을 체화하고 실천한 사람으로, 그들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인간형의 역할과 그들의 행동을 규율했던 가치와 규범은 그 나라의 정신적 근간으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인간형은 누구일까? 한국인들 대부분은 '선비'를 떠올릴 것이다. 물론 선비형 인간은 오늘날에는 사라지고 없는 전근대적 인물이지만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선비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배움을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이나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의(義)', '양심' 등은 선비정신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비 정신'은 일제 시기 독립운동을 이끈 정신적 지주였으며 군사 독재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선비라는 말은 외형상 어질고 지식있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선비정신의 발현은 지조와 절개로 나타난다.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기꺼이 목숨

을 던져 이를 구하는 데 앞장섰던 ‘견위수명’(見危授命)<sup>17)</sup> 이 선비 정신이 핵심이다. 선비정신은 나라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항상 한국인들을 지탱해준 정신이었다.

선비 유인석(柳麟錫)은 구한말 강화도조약이 체결될 때 반대 상소를 시작으로 김홍집 친일내각이 성립되자 의병장으로 나서 충주, 제천 등지에서 친일 관료들을 죽이고 일제와 싸우다가 만주와 러시아로 망명했다. 뒷날 블라디보스톡에서 13도 의군도총재에 추대되어 일제와 치열하게 싸웠다. 유인석은 선비로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거병하면서 당시 조선의 처지에서 유학자들이 택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자신은 결연하게 실천에 나섰다.

무릇 우리 유학의 도가 지극히 위대하고 몸은 귀중하니, 도(道)가 끝나려 하는 데 몸이 도와 함께 같이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스스로 자결하여 뜻을 지킴(自靖遂志)이 정당하고, 도가 없어지려는 것을 참지 못해 몸이 도와 함께 보존하기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떠나가서 옛 것을 지킴(去之守舊)을 말하는 것이니 이도 정당하며, 도는 동포와 함께 얻은 것이라서 몸이 도와 함께 보존하기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거병(擧兵)하여 깨끗이 함(擧義掃清)을 말함 또한 정당하다!<sup>18)</sup>

유인석이 제시한 ‘처변삼사(處變三事)’는 선비들이 지켜온 윤리강령이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던진다(見危致命)는 원칙에 따라 잘못된 정책은 목숨을 걸고 상소나 간언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육신(死六臣)이다. 세조의 왕위찬탈과 폐륜행위를 비판하며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또한 외적의 침입 때 의병 활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선비들이 있다. 삼학사(三學士)는 병자호란 때 결사 항전을 주장하다 청나라로 끌려가 참형을 당

17) 『논어』 제14편 헌문(憲問)편에 나오는 말이다. 자로(子路)가 인간완성에 대해 묻자 공자가 " 지혜, 청렴, 무욕, 용감, 예능을 두루 갖추고 예약으로 교양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에는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 (見利思義),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칠 줄 알고 (見危授命), 오랜 약속일지라도 전날의 자기 말을 잊지 않고 실천 한다면 (久要不忘平生之言) 역시 인간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한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18) 유인석, 『국역 소의신편(國譯 昭儀新編)』 제2권, 사단법인 의암학회, 2006, p.78.

했다. 또한 최익현 황현처럼 일제강점기 국권 침탈에 항의하여 자결한 선비들도 있다. 매천 황현은 <절명시>에서 “내가 여기 자결할 뿐 의병을 일으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거병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면암 최익현은 “모두 죽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는가.”라고 탄식하며 노구를 이끌고 직접 의병에 나섰다고 한다.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은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에서 올곧은 선비들이 아침에 고언하고,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 직언을 서슴치 않았기에 왕권을 견제할 수 있었고 이는 조선 왕조가 500년을 지속한 힘이었다<sup>19)</sup>고 단언한다.

이처럼 선비들은 대의명분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명분(名分)이란 글자 그대로 이름에 걸맞은 분수이다. 그 이름에 걸맞은 분수를 지키는 것이 명분을 지키는 것이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목숨을 던지는 명예와는 그 의미상의 차이가 크다 ‘윗사람 곁에서 봉사함’,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림’을 뜻하는 사무라이(武士)는 죽음과 죽임을 궁극 목표로 삼는 무인이며, 군대식 지배자인 동시에 주종관계로 얽힌 피지배자였다. 사무라이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명예란 주군을 섬길 의무와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의무로 크게 나뉜다. 무사에게 있어 명예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려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떡장수의 이웃집에 가난한 홀아버 사무라이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떡집에서 놀다가 돌아간 후 떡장수는 떡 한 접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히 사무라이의 아들에게 혐의를 두게 되었고 떡장수는 그에게 떡값을 내라고 하였다. 사무라이는 ‘아무리 가난할망정 내 자식은 사무라이의 자식이다 남의 가게에서 떡을 훔쳐 먹었을 리가 없다’라고 극구 해명하였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줄라대는 떡장수에게 참다못한 사무라이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칼을 빼 아들의 배를 갈라 떡을 먹지 않았음을 입증해 보인 다음, 그 칼로 떡장수를 베어 죽이고는 할복해 자살하였다.<sup>20)</sup>

일본 무사도의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 <하카게>(葉隱)에 나오는 이야기로

19) 이성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청아출판사, 2009.

20) 김영, 『일본문화의 이해』, 제이앤씨, 2002, p.234.

<하카게>의 저자는 이것을 무사다운 행위라고 극찬한다. 사무라이는 배를 주릴망정 명예에 죽고 사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래서 만들어진 무사도, 그중에서도 목숨을 초개처럼 여기는 무사도의 극치를 일러 하가쿠레(葉隠礼) 정신, 곧 '나뭇잎 그늘에 숨는 정신'이라고 극적으로 미화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무라이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움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쉽사리 목숨을 버렸다. '무사란 정월 초하루 아침부터 그해 선달 그믐날 저녁에 이르기까지 매일 낮과 밤을 한결같이 마음에 죽음의 각오를 다지고 살았다. 무사사회에서는 죽음에의 각오가 서있는지 여부가 그가 무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다'<sup>21)</sup>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린다는 봉건 시대 무사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현대 일본사회에서도 유명 인사들의 자살이 흔하다. 자살의 주된 원인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또는 공동체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 명예를 잃는 일은 죽음보다 더 두렵기 때문이다.

죽음의 문제에 있어 선비정신과 사무라이는 정신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선비는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이 의(義)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일본 사무라이의 경우 죽음을 택할 때에는 주군과의 관계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 주군에게서 명예가 의심받을 때 혹은 주군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죽음이라면 사무라이들은 과감히 할복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죽음에 대면하였다. 즉 일본 사무라이의 경우 대개는 나라 전체이기 보다는 자신의 속한 주군과의 관계성에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전면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명예에 대한 확정의 과정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sup>22)</sup> 가장 일본적인 자살법으로 일컬어지는 할복도 그래서 나왔다. 적군의 우두머리를 생포하더라도 형벌을 가하기보다는 할복으로 자살토록 하여 명예를 지키게 해주었던 것이다. 유독 배를 가른 이유도 따로 있었다.

21) 니토베 이나조 저, 양경미, 권만규 옮김, 『일본인의 무사도』, 생각의나무, 2006, p.223.

22) 신현승, 「일본의 무사와 조선의 문사의 정신세계 - 무사도와 선비정신의 비교연구」, 『일본학연구』 제32집, p.150.

봉건시대로부터 그들은 인간의 영혼이 배에 깃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할복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으로 인식되었다. 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주군에 대한 충성을 다했고 그 충성이 의심받을 때 단호히 죽음을 선택했던 일본 사무라이의 삶의 양식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상적인 삶 그 자체였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비극의 대부분은 주군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죽인 이들의 회생적 이야기다. 이는 모두 봉건시대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사들의 죽음에 대한 사고를 보면 죽음은 한번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에 한번 있는 죽음이 바로 인간의 일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신념에서부터 출발한다. 정의롭고 용감하고 충성심 강하고 등 온갖 찬사를 한 몸에 지닌 사람이라도 죽음 자체가 무사답지 못할 때 그 모든 생전의 경력은 일말의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며 반대로 아무리 비난받을 행적이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기준인 죽음의 형태가 무사다운 때 그 생전의 악의 행적은 소멸된다고 생각하였다. 무사들에게는 죽음의 동기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면 무사다운 죽음이었다’<sup>23)</sup>

선비나 사무라이 모두 의(義)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지만 선비에게 의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뜻한다. 일본인들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지켜야 할 의무로서의 의리가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 할 마땅함을 따지는 것이다. 선비들에게 의롭게 이름을 남기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후손들에게 그 이름을 남기게 되고 이름을 남기는 것은 죽음마저 뛰어넘는 대단한 가치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선비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이 추구하고 공유하는 공동 가치에 대한 충성을 의미 있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무라이와 다르다.

결론적으로 '조선 선비의 사도에는 '생(生)의 미학'이 있고 거기에는 인륜(=도덕)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었다. 반면 일본 사무라이의 무사도에는 '사

23) 고영자, 「일본정신 - 무사도」, 『일본학』 18,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9.12, p.237.

(死)의 미학'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선비는 붓으로 사무라이는 칼로 상징되듯이 문사의 필수품인 붓과 사무라이의 필수품인 칼을 생각해 볼 때도 선비정신과 사무라이 정신의 차이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선비의 사도와 일본사무라이의 무사도는 그 뿌리를 유교내지는 유학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정신세계와 실상은 정치적 사회적 제 요인으로 인하여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다.'<sup>24)</sup>

#### IV. 생존의 미학과 죽음의 미학

선비는 명분을 위해서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여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찬양하지는 않았다. 선비뿐 아니라 한국인들 모두는 '살아있음' 또는 '살아남음'의 사상을 고수했다. 한국인의 '생존의 미학'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속담이 바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구차하고 어려워도 죽어서 저승 가는 것 보다는 숨을 쉬고 살아 있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죽은 개가 산 정승만 못하다' '땀감을 따먹고 살아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등이 있는데 이 말들은 삶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했던 우리 조상들의 사생관(死生觀)이 녹아 있는 말들이다.

실상 한국인의 죽음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종교는 유교일 것이다. 물론 무교나 도교, 불교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지만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유교적 관념이다. 유교의 죽음관을 논하려면 먼저 공자의 사생관을 살펴야 한다. 공자의 제자인 계로가 공자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태어나는 것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오"라고 하였다. 이처럼 유교는 내세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관도 확실하지 않다. '제자인 계로의 문답에서 공자는 삶을 알면 저절로 죽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공자는 죽음보다 삶을 더 중시하고 살아있는 사람끼리의 질서 즉 공 윤리도덕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24) 신현승, 위의 글, p.151.

죽음보다 삶을 더 중시하였고 절실하게 생각했다. 죽음이냐 내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한 바는 없지만 삶을 알면 죽음은 저절로 알게 되며 현세의 연장이 내세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25)</sup>

유교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참된 삶의 문제이지 죽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인은 영혼보다는 육체를 내세보다는 현세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현실주의적인 신앙도 이와 관련이 있으며 ‘죽음없는 사상’과 ‘죽음을 기피하는 삶’을 살아오게 했다고 한다<sup>26)</sup> 더 나아가 한국인은 이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고 보며 죽은 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sup>27)</sup> 이런 현생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화가 두드러지지 못하다. 그래서 죽음 자체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도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고 생(生)의 연장을 극히 중요시하는 한국인들과 달리 사무라이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는 사무라이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의식구조 나아가서 사회구조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살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죽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대 최선의 수단이라고 본다<sup>28)</sup> ‘살아서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쪽이 낫다’ 라든가 ‘죽을 때 죽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큰 수치가 있다’라는 일본 속담은 일본인들의 이러한 의식구조를 잘 반영하는 말이다. 또 다른 일본 속담에는 ‘아무리 나쁜 인물이라도 죽으면 부처’라는 말이 있다. 일단 죽으면 그 인물이 생전에 아무리 잘못이 많고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용서한다는 뜻이다. 일본인들은 범법자가 자살로써 생을 마감했을 때 그 죄를 모두 잊어 버리며 심지어는 그의 행위에 대한 영웅적인 찬사마저 보내고는 한다.

한국인은 자살한 사람을 동정하거나 찬양하기 보다는 죽은 사람을 현세에 되돌아오게끔 불러내어 소생시키는 편을 택한다. 조선조시대의 대표적인 소

25) 이은봉, 「유교에도 저승은 있는가?」, 『한국인의 죽음과 삶』, 서울대출판부, 1995, pp.100-101.

26) 김열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서울 궁리, 2001.

27) 탁석산,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창비, 2008.

28) 최길성, 「일본 무사도의 충효와 죽음」, 『일본학지』, 계명대 일본문화연구소, 1980. 4, p.84.



설의 주인공들, 예컨대 『심청전』의 ‘심청’ 『장화홍련전』 ‘장화’와 ‘홍련’ 자매 『숙영낭자전』의 ‘숙영낭자’는 바다물에 빠지거나 자살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이 세상을 떠났으나 다시 이승에 부활 소생하여 행복하게 일생을 보내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나는 전통예술이나 고전문학은 거의 없다. 주인공이 겪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비극을 충분히 맛보고 느끼면서도 끝은 늘 행복하게 결말짓는다. 여기에도 역시 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생사관이 잘 드러나 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자살을 신이 주신 목숨을 자신의 맘대로 함부로 하는 행위로 본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여긴다. 우리나라의 선비들 또한 자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것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부모를 죽이는 것만큼이나 큰 불효라 보았다. 이와는 다르게 ‘무사들은 생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죽을 명분이 있을 때는 무사도를 지키기 위해 쉽게 죽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무사도의 사생관은 그 영향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일본인의 자살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sup>29)</sup> 일본은 자살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바람의 검심」(『風の剣心』)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살을 자신의 명예를 지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떳떳함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의 가장 유명한 속담 중에는 ‘꽃은 벚꽃이요 사람은 사무라이’라는 말이 있다. 벚꽃은 예로부터 사무라이의 상징적인 이미지였다. 단 한 번의 번뜩이는 칼날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무라이의 생에서 가장 화려할 때 꽃잎을 흩날리는 벚꽃의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다. 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벚꽃은 주군을 위해 언제든지 목숨을 버리는 사무라이의 정신과도 매우 닮아 있다. 때문에 사무라이가 할복자살을 할 때는 유독 벚나무 아래에서 배를 가르는 경우가 많았다. 태평양전쟁 때에는 미국 군함을 향해 돌진하던 가미카제 특공대의 비행기에 벚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결연한 표정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특공대원의 가슴은 물론 마지막으로 그들을 배웅하던 어린 여학생들의 손에도 벚꽃 가지가 들려 있었다. 무사들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

29) 윤영기, 「선비정신과 무사도의 비교연구 효충 사생관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4, 효성대학교 일본문제연구소, 1990. 12, p.60.

었던 것 중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인데 벚꽃의 한 순간에 아름답게 피어났다 순간적으로 저버리는 것처럼 일본인들은 인생의 절정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답게 죽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살을 통해 삶을 완성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수학자이며 일본문화 전문가인 김용운은 일본인들이 죽음을 미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충(忠)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그 원형은 기마민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즉 기마민족의 특징은 전쟁인데 전쟁은 죽음이 따르기 마련이고 따라서 죽음을 긍정하는 철학이 요청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 강화의 윤리를 강조하는 죽음의 미학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한국에서는 일찍이 사라졌지만 일본에서는 무사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sup>30)</sup>

이처럼 일본인들은 죽음을 미화하고 미학으로까지 승화시켰다. 죽음의 미학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할복(割腹)’이다. ‘무사의 사생관은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행위가 자살로 변용되었다. 무사들의 자살의 형식 속에서 극단적으로 의식적이며 극단적인 자기 억제를 필요로 하는 형식이 할복<sup>31)</sup>이었던 것이다. 사무라이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명예를 되찾으려 했다. 그래서 할복자살은 그들에게 무사의 긍지와 패기를 보여주는 신성한 의식행위로까지 여겨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인에게 죽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을 강조한다 해서 죽음 자체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 단순히 생을 비판하고 죽음을 찬미하는 염세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죽음을 전제로 생을 가다듬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무사도는 죽음을 강조하면서 역설적으로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즉 살아가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하는 인생관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순히 목숨을 연장하기보다는 죽는 것이 좋으며 출장부가 안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다<sup>32)</sup>

30) 김용운, 앞의 책, p.84.

31) 김분숙, 「일본인의 죽음에 대한 의식구조」, 『인문과학연구』, 동아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6, pp.190-191.

32) 최길성, 앞의 논문 p.83.

일본인의 죽음의 미학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전제로 하여 삶을 가다듬는 자세 및 가치 관념으로 변용되었다. 일본어에는 잇쇼겐메이(一生懸命)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라는 뜻이다. 한문을 자세히 보면 원래는 어떤 한 장소를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잇쇼겐메이는 어디까지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잇쇼겐메이의 정신이 사무라이에 나타나면 열심히 사람을 죽이는 침략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상인들에게 나타나면 열심히 돈을 버는 상업주의가 될 수 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렇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체질화된 일본인의 국민성이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sup>33)</sup>.

결국 한국인 일본인 모두에게 죽음은 삶의 의미와 생존의 조건에 긴장을 주기도 하면서 삶을 가다듬는 기제로 작용하였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생존의 미학’이나 일본인의 ‘죽음의 미학’은 민족의 삶의 방식 및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한 재료가 되었다. 한국인은 수많은 외침으로 얼룩진 힘든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잡초와 같은 끈기와 생존력을 보여주며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다듬어왔다. 일본의 죽음의 미학은 도리어 삶의 배수진이 되어 그들의 삶을 더욱 더 알차게 해주었다. 일본인은 열성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 죽음을 각오하고 임해왔기에 오늘날의 일본을 이룩했던 것이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제행 무상이야’라고 재빨리 체념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영차영차 열심히 집을 짓는’<sup>34)</sup> 것이 바로 일본인이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죽음의식을 비교 고찰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33)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사, 2003, p.125.

34)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잡문집』, 비채, 2011. p.78.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죽음을 표현하는 언어 면에서 살펴볼 때 한국인의 죽음의식은 ‘돌아가다’ 일본인의 죽음의식은 ‘사요나라’로 요약할 수 있다. ‘돌아가다’를 통해 한국인의 죽음관은 삶과 죽음은 단절되지 않았고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사요나라’는 일본인은 죽음을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로 ‘체념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체념’이란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 슬픈 감정을 미학적으로 승화시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두 나라를 대표하는 이상적 인물인 선비와 사무라이의 죽음의식을 살펴보았다. 선비가 죽고 사는 것은 명분 때문이고 사무라이는 의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선비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이 추구하고 공유하는 공동 가치에 대한 충성을 의미 있게 생각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사무라이는 주군에 대한 충성·희생을 중시하였고 그 충성이 의심받을 때 단호히 죽음을 선택했다. 그들은 주군에게 충성하고 명예롭게 죽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고 죽는 방법은 할복이라는 대담한 자살방법을 통해서였다.

셋째로 한국인들과 일본인의 죽음의식은 ‘생존의 미학’과 ‘죽음의 미학’으로 요약 수 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고 생(生)의 연장을 극히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우선시했다. 우리의 전통예술이나 고전문학에서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나는 작품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러한 사고를 잘 반영해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일본인들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본다. 죽음을 미화하고 미학으로까지 승화시켰다. 일본인들은 인생의 절정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답게 죽기를 원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 생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죽음의식은 매우 뚜렷한 형태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신사를 관통하고 있고 두 나라 문화의 근본적 차이는 죽음에 대한 태도 즉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고영자, 「일본정신 - 무사도」, 『일본학』 18,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9.
- 김분숙, 「일본인의 죽음에 대한 의식구조」, 『인문과학연구』, 동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 김양기, 「한일의 자살비교」, 『가면속의 일본인』, 한나라, 1994.
- 김열규, 『메멘토 모리, 죽음 기억하라』, 궁리, 2001.
- \_\_\_\_\_, 『한국인의 죽음과 삶』, 철학과현실사, 2001.
- 김 영, 『일본문화의 이해』, 제이앤씨, 2002.
- 김용운, 『한국인과 일본인 1 칼과 붓』, 한길사, 1994.
- \_\_\_\_\_, 『한국인과 일본인 4 정착과 정복』, 한길사, 1994.
- 김응교, 「일본문화의 전통과 현재」, 『교회와 신앙』, 한국교회문화사, 1999.
- 노성환, 「한국의 분신과 일본의 할복」, 『일본어문학』, 2002.
- 니토베 이나조, 『일본인의 무사도』, 양경마·권만규 역, 생각의나무, 2006.
- 다케우치 세이치, 『일본인은 헤어질 때 왜 ‘사요나라’ 라고 말할까』, 어문학사, 2010.
-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잡문집』, 비채, 2011.
- 박완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비평사, 2006.
- 신현승, 「일본의 무사와 조선의 문사의 정신세계-무사도와 선비정신의 비교연구」, 『일본학연구』 제32집, 연도.
- 유인석, 『국역 소의신편(國譯 昭儀新編)』 제2권, 사단법인 의암학회, 2006.
- 윤영기, 「선비정신과 무사도의 비교연구 효충 사생관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4, 효성대학교 일본문제연구소, 1990.
- 이성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청아출판사, 2009.
-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사, 2003.
- 이은봉, 「유교에도 저승은 있는가?」, 『한국인의 죽음과 삶』, 서울대출판부, 1995.
- 정해승, 『엔터테인먼트 경제학』, 휴먼비즈니스, 2006.
- 최길성, 「한일의 자살을 통해 본 생명관」, 『일본학지』 8, 계명대 일본문화연구소, 연도.
- 탁석산,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창비, 2008.

❖ ABSTRACT

##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View about the Death of Korean and Japanese

Jeong, Su H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look at the basis of the cultural differences of Korea and Japan by comparing the view about the death.

Firstly, in terms of language to express the death, Korea can be summarized 'doragada (go back) Japan can be summarized sayonara(goodbye). Koreans' view about the death is that life and death are not separated and death is the start of another life not the end of existence through 'doragada' Japanese accept death as the order of the universe and the order of nature with resignation. At this time resignation means that Japanese accept the sad feeling to sublimate aesthetically while mourning the death

Secondly The view about the death of Sunbee in the Joseon era and Japanese Samurai who were the traditional ideal figures is compared. The Sunbee dies from a justification and the Samurai die from the honor on the other hand. Unconditionally, the sunbee was not loyal to an individual but they thought significantly of the fidelity about the joint value. Unlike this, Japanese Samurai laid stress on the loyalty toward their lord and sacrifice. They selected the death conclusively when this fidelity was suspected.

Thirdly the view about the death of Korea and Japan is summarized to the aesthetics of the survival and the aesthetics of the death. Korean saw the death negatively and regard exceedingly the extension of life, they preceded to survive in all kinds of difficulties. On the contrary, Japanese see it positively. They beautified the death and sublimated with the aesthetics. they pursue the nature of the life through the death.

Finally, the basic difference of the korean and Japanese culture originate from the view about the death that is, the difference of the values about the life and death.

---

**Key Words**

돌아가다, 사요나라, 선비, 사무라이, 죽음관

doragada(go back), sayonara(goodbye), Sunbee, Samurai, the view about the death.

논문접수일: 2013. 02. 10.

심사완료일: 2013. 03. 10.

게재확정일: 2013. 03. 15.